'소중한 가치'를 위해 '행동하는' 대표

최희정
부산 중앙여고 2학년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통일남북교류상임위원회 소속

참여를 알기 위해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학생으로서 끌려가 받는 가르침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참여이어야만 깨닫는 바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래 한국의 주역이기 앞서 오늘, 나 자신의 주인인 우리 청소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유권자로서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로서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토록 활동하는 '정치'의 과정이 필요하단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청소년의회 구성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의원 후보로 등록했고, 사이버 상의 선거운동 끝에 당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요. 저 스스로 교과서를 떠난 새로운 앎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나보다 남'을 위하는 봉사정신 보단,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참여의식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임했기에 마음은 더욱 즐거웠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라며 입 발린 말로 표만 챙기고 배신하는 녹슨 금배지 의원님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나를 포함한 우리'라는 참여의식에 자부심 가져

시도별 인구비례, 온라인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99명의 의원들은 지난 6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임시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때 의장단 선출, 상임위 구성 및 방향성에 관한 논의 등을 통해 기본 골격을 갖추었고, 상임위별 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드디어 8월 4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정기회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회 정기회의' 현수막이 반갑게 저를 맞아준 곳은 바로 국회. 썰렁한 '방탄국회'를 점거한 꼴이 된 우리들은 첫 날부터 개회식 끝나기가 무섭게 스파르타식(!) 집중 연수를 받았답니다. 대의 민주주의와 의회의 역할, 그 운영 기법, 입법과정 등에 대한 교수님들의 수준 높은 강의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졸음을 못 이기는 웃지 못 할 광경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의원들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자민련 등의 당사를 방문해 청소년의회 홍보를 톡톡히 해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당의 홍보에 급급하여 당의 자세한 청소년 정책을 포함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밤새 불 밝히고 열띤 토론을 하던 우리 의원들! 슬슬 언론이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기자며, 카메라며 따라다니는데, 피곤한 모습을 보일 순 없죠. 직접 찾아오신 개혁국민정당, 민주노동당 관계자 분들께 못 다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청소년의회 의원답게, 질문은 당연히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중심이었지요.

의원 연수, 정당 방문 등 우리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보다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간' 상임위별 활동과 본회의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의사대변, 권익 증진을 모토로 출범하였기에, '청소년 인권 확대,

선거연령 인하, 청소년 복지 등을 위해 노력하며' 라고 결의문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청소년 운동단체' 의 선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청소년 대의기관' 으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 제반 분야(정치, 경제, 정보통신, 국제협력, 통일남북교류 등)에 상임위를 두고 청소년의 관심 제고 및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의사 대변과 권익 증진이 모토

그리고 저는 통일 한국을 우리 세대가 주도하게 될 것이란 믿음으로 청소년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던 터라, 당연히 통일남북교류위원회를 선택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남북 청소년의 문화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그보다 앞서 청소년의 올바른 통일 인식을 위해 청소년 스스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효과를 증대시키자는 취지에서 청소년사이버통일한마당(가칭)을 새로운 통일 교육 대안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원 5명이 밤을 꼬박 새워 정리한 것도 모자라, 많은 토론을 거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완성된 의안. 영향력 있는 민간통일운동단체, 민화협 방문 등을 통해 교류의 물꼬를 틔우게 된 경험.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지만, 국회 의사당의 본회의처럼, 나름의 격식을 갖춰 의원들 앞에서 의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할 때, 그리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에 이를 때, 어찌나 뿌듯한 보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비록 모두가 서툴러 삐걱거리면서도, 다툼 없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제자리를 잡아갔던 우리들의 의사진행 모습은 '가서 국회의원 한방 먹일 정도로 잘 하고 와라' 하던 친구에게 자랑스레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많은 의안들 중에서도 철저히 준비된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학생자치상임위원회의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촉구에 관한 성명',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안' 은 본회의 가결 후 벌써 청원 집행에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여러 채택된 안들은 좀더 구체화되어 곧 집행될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의 자랑스런 아이디어도 가결되었거든요. 열심히 해보자! 새로이 다짐하게 됩니다.

모두가 서툴러 삐걱거리면서도 다툼 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았던 청소년 의회의 의사 진행 모습

부산 내려오기 이틀 전, K-TV 방송국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를 주제로 한 생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의회 대변인 김재우 군과, 후원 단체 대표로 계신 최현섭 교수님이 패널로 참가하셨지요. 청소년의 미숙함과,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토론자 한 분이 우리 청소년의회를 겨냥해 쓴 소리를 하셨답니다. 조금의 말 실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가 어른들의 '감시 아래, 보호 아래' 활동한다니요.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청소년 의회는 국가적 과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곳곳에서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관' 으로서의 청소년 의회는 국가적 과제로 다뤄지고, 나라에서 그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한참 늦은 우리나라는 무관심하고, 기성세대들은 고루한 보호 논리 속에서, 이제 막 일어나려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품안의 병아리라며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더듬어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네요.

필요성을 느꼈던 바로 그 때, 내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청소년 의회' 를 만들자며 모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구요. 때늦은 후회겠지요.

큰 아쉬움이 남기에, 이젠 법제화가 빨리 이뤄져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가 청소년의 자율적인 대의기구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 노력의 중심에는 저희 99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조그만 목소리를 한데 모아 확성기를 부여잡고 힘 있게 외쳐줄 '행동하는' 대표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힘찬 결의가 있기에, '인간을 위한 보다 소중한 가치' 를 아는 우리이기에 무한한 희망이 있음을 자부합니다.